

지친 삶 위로해주는 야구...타이거즈는 에너지이자 축복

야 구

KIA 타이거즈, 야구단 의미 넘어 호남인들의 꿈·사랑·낭만·용기 정규리그~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우여곡절 함께 하며 해피엔딩

“야구로 행복했다, 고맙다 타이거즈” 기아타이거즈가 V12의 위업을 달성한 다음날 아침, 연고지 광주의 대표신문 광주일보의 1면トップ 기사의 제목이다.

기아타이거즈를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 호남인 전체의 마음, 나아가 지역을 불문하고 기아 타이거즈의 거침없는 플레이를 좋아하는 전국의 기아팬들의 마음을 이보다 더 정확히 표현한 제목은 없지 않을까.

기아타이거즈는 단순히 한국 프로야구 10개 구단중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기아타이거즈는 광주 시민의 꿈 사랑 낭만 용기 드라마 그리고 삶의 위안이자 축복이다.

수도권의 호남인, 영남에서 살아가는 호남인 모두에게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달래주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라고나 할까.

10월 28일 광주의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가 12번째로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호남인은 환호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직장과 학교, 음식점 등지에 삼삼오오 모인 지역민들은 타이거즈의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우승 소식에 웃음꽃을 피웠고, 넘쳐나는 코리아시리즈 뒷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광주시민 모두가 감동이고, 누구나 선수’인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승리의 여운은 다음 날로 이어져 우승 기념 무료 행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29일 서구 농성동 한 카페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하면 무료로 커피를 준다’는 약속을 지켰고, 이날 하루 찾아온 시민의 발길로 북적였다.

기아타이거즈의 경기는 ‘만화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다진 경기를 뒤집고 투아웃 풀카운트에 만루 홈런이 터지고 그림 같은 수비 하나가 팀 분위기를 되살려 감탄을 자아낸다. 타이거즈는 해태 시절부터 뭉툭 비싼 특급선수들로 경기를 이기는 팀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목받지 못하던 선수를 특급 선수로 키워내고 약자같은 승부근성과 조직력으로 승리를 쌓아가는 팀이었다. 김봉연 김중모 김성환 선동열 이종범같은 레전드들은 그대로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였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삼성에 승리하며 7년 만에 통합우승을 달성한 KIA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올 시즌이 개막할 당시 KIA 타이거즈는 금품수사 사건으로 감독과 단장이 전격 교체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초보 감독’ 이범호의 부임에 지역민

들과 팬들은 많은 우려를 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초보 감독’과 푹푹 뭉친 타이거즈 선수들은 시즌 초반부터 1위를 수성하고 김도영이라는 스타 선수

까지 배출해가며 지역민들과 팬들에게 울 한 줄 거움을 선사했고, 이 저력은 내년 시즌도 우승을 이여가자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야구는 호남, 광주는 기아타이거즈 보유도시라 는 즐거움이 영원히 이어질지 모든 시민들은 염원 하고 있다. /김민우 학생기자

유럽 귀족 스포츠, 광주에선 대중 스포츠

승마장

초보~전문가 수준별 맞춤형 강습 가족·기업·단체 다양한 수요 충족



광주광역시에는 최근 여가 문화의 변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승마장을 중심으로 한 승마 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승마는 심신의 단련, 스트레스 해소, 자연과의 교감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고급 스포츠로, 도심 속에서 즐기기에 어려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승마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승마가 대중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 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에는 현재 다양한 승마장이 운영 중이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와 시설의 편리함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승마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수준별 맞춤형 강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기본 승마 교육 외에도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기업 단체 워크숍, 청소년 승마 교실 등이 운영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말과 함께하는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장애인 승마 치료 프로그램 등 특화된 서비스도 주목 받고 있다.

승마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말과의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신체를 단련하는 과정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승마는 전신 운동으로, 균형감각 향상과 근력 강화에 효과적이며, 특히 허리와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광주의 승마장들은 이러한 승마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도심 속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

게 새로운 힐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승마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승마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초보자를 위한 체험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승마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승마를 여가 활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말 관리와 시설 안전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승마의 심리적, 신체적 장점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승마장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 선택지를 넓히고,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문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을 통해 광주의 대표적인 여가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세계대회 개최...생활체육·학교 교육 요람

남부대 수영장

국내외 전지훈련 장소로도 인기 주민 수영교실·학교 수업 등 진행

지난 2019년 7월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대회였다. 194개국에서 온 7,500여 명의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했고, 최고 수준의 수영 인프라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이 대회의 주요 경기장은 바로 남부대 수영장이었다. 대회 후 이곳은 일시적인 경기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회 후 수영장은 스포츠와 지역사회의 복합 공간으로 변모했다.

먼저 광주를 포함한 국내의 여러 수영 대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남부대 수영장은 국내의 선수의 전지훈련 장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광주가 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수영 교실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수준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학교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수영선수 육성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유망한 젊은 선수들이

이곳에서 훈련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다양한 부대 시설 등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남부대 수영장 스포츠와 지역사회가 공존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광주와 한국 수영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남부대 시립 수영장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길 25 (월계동) 남부대학교시립국제수영장 홈페이지: <https://worldswimming.nambu.ac.kr/home/> 전화번호: 062-460-2015

피겨·아이스하키·스케이트...사계절 겨울 스포츠 만끽

빙상장

어린이·청소년·성인 맞춤형 각종 장비 대여...접근성 높아

광주광역시 빙상장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계절 내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종목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빙상장은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기초 스케이트 강습, 청소년 대상의 피겨스케이팅 수업, 성인을 위한 아이스하키 리그 등 연령과 수준에 맞춘 강습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적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겨울철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급증하며,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각종 장비 대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거

울철 한정으로는 운영되는 따뜻한 카페는 방문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빙상장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가와 건강을, 선수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장은 앞으로도 광주 시민들이 빙상 문화를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 빙상장은 지역사회를 결속시키는 공간이자, 광주의 스포츠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우 학생기자